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6 | 2025 APRIL | 04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 잠언 31:25 -

칼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박해받는 여성들

- 그들의 이야기
- 기도와 후원

박해와 선교현장

- 나이지리아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WWL 전북/대구/광주지역 순회 발표
-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4월호 | 통권 276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04 박해받는 여성들
- 그들의 이야기 - 기도와 후원

12 박해와 선교현장
- 나이지리아

20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21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WWL 전북/대구/광주지역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서창원 목사(오픈도어선교회 이사)

고난 받고 있는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라면 마땅히 할 일이다. 성경이 개개인 성도들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12장).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어도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고전 12:26)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늘에 실가듯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손에 가시가 찢려 아파하면 눈이나 입과 다른 손만이 아니라 온 몸이 다 동원되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불변의 명제 자체가 지역과 국경과 성별과 빈부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 하나의 몸된 교회임을 깊이 자각하게 한다. 물론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근에 있는 지체들을 보듬고 품고 안고 함께 가는 것이지만 최첨단 인공지능의 발달로 영상으로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서 국경을 뛰어넘고 시간을 건너서 하나로 묶는 기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줄을 연결하는 것은 몸과 지체라는 신학적 실체를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 깊이와 성숙함 그리고 능력과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열매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주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런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남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의 보좌 앞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읊을 하늘 어전 회의 석상에서 마귀 앞에 칭찬하신 주님께서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몸으로 가서 섬긴 이들을 옳다 인정해 주시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때로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아픔으로 뒤로 물러나게 하는 유혹도 따라오는 것이요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화로 여긴 모세의 길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명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생명의 활력을 얻게 하는 진리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열매는 맺게 될 것이다. 그에게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끊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힘을 수시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아 찾아오지만 영혼을 건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참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 자체는 보잘 것 없어보여도 거기에 달리는 열매는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붙어 있는 가지는 능력(진액)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이란 말인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지체 역할 담당에 충실한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박해받는 여성들 - 그들의 이야기

존엄성 회복을 경험하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조리나는 박해의 수치와 트라우마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다른 여성들에게 존엄과 능력을 옷 입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사는 조리나는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이 벗기고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박해받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리나는 혼란스러움과 희망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의 여성 15명이 그녀를 초대했고, 조리나는 그들이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리나를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조리나는 존엄성을 빼앗겼고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트라우마를 다시 회상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그들은 제 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인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잘못 해석한 현지의 토속 신화로 인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몸에 어떤 '흔적'이 남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고, 그들은 제 몸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섬세하고 또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그 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일은 조리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강하고 담대한 여성은 박해가 그녀의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

조리나가 살아가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의 삶은 위험하고 힘겹습니다. 성차별적인 폭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독교인인 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단 0.3% 만이 기독교인이며, (조리나 처럼)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극심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녀를 빼앗기거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기반의 문화 속에서 강력한 은밀한 박해 무기는 바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을 여성들이 조리나의 옷을 벗기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을 때, 그녀가 진정 고통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삶

하지만 이 공격 이후, 조리나는 예수님께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분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서를 읽은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리나는 몇년 전 남편과 함께 신앙을 받아들였고, 부부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자녀들도 박해자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조리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해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조리나는 무슬림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희는 그것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픈도어가 수년간 돕고 있는 이 부부의 가정교회에는 현재 25개의 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리나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도 시작했으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존엄성을 옷 입다

"저희 마을의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여성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주 무시를 당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인 저희는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조리나는 '아난나', 즉 '특별한 여성'이라는 의미의 오픈도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지 여성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이 존엄성을 옷 입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성

들은 필수적인 지원 없이는 몹시 취약합니다. 그들은 외롭고 잊혀진 듯 느끼며, 고통은 가려지고,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신앙과 성별로 인해 박해받는 모든 여성들이 목격되고, 귀하게 여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조리나의 사역을 지지하고, 박해받는 여성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성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그리고 재봉이나 미용과 같은 직업 관련 기술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리나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 굳게 서서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 31:25

조리나의 가정교회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딸로서 사랑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배우고, 이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바틀*은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그녀에게 닥칠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그녀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바틀*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대가를 감수하고 지하교회에서 다른 박해받는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 가해진다면 그 아픔은 더욱 깊습니다. "언니들은 저를 때렸고, 어머니에게도 저를 벌주라고 부추겼어요. 언니들은 어머니에게 지팡이로 저를 때리라고 했어요."

더욱 괴로운 것은, 바틀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새로운 믿음 때문에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바틀은 16살 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 나라는 너무 위험해서 이름조차 밝힐 수 없습니다. 바틀은 과거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틀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박해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대신 분노를 바틀에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심과 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마치 동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사랑해주어야 할 친어머니가 언니들과 함께 저를 박해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없고, 믿음도 흔들렸어요. 그때 제 삶을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의 지원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픈도어의 파트너인 유세프 형제*는 바틀의 고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틀에게 다가가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먼저 말하라고 하셨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바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바틀은 오픈도어 지하 가정교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외로운 믿음 생활을 하

던 제가 찾고 있던 가족과도 같아요. 저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바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다른 여성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언니들 중 한명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찾던 가족과도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전히 아프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슬픈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쁨을 느껴요.

"제가 겪는 일들이 힘들어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할거예요."



기도 제목

- 바툴의 믿음과 그녀의 여성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북아프리카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기도해주세요. 박해가 종식되도록 담대하게 기도해주세요.
- 북아프리카에서 용감하게 사역하는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극심한 위험으로 인해 가명을 사용하고 실물이 아닌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담대해진 전도자

솀파 로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그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녀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살아가는 솀파 로이는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140명이 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여성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솜파 로이의 삶보다 더 어려운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이 놀라운 여성은,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삶을 드린 이후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박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솜파 로이와 기독교인인 그녀의 남편이 사는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솜파 로이를 묶고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무슬림 남성이 솜파 로이 무참히 폭행하고 그녀의 11살된 딸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키우던 소와 염소가 독살되었습니다. (교회와 공용하는) 유일한 가족 화장실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어떤 이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솜파 로이가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훈련, 기도,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

여러분의 후원으로 솜파 로이의 교회는 화장실이 파손된 직후 새로운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전거를 선물받아 안전하게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남편이 일을 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이 가정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솜파 로이는 오픈도어 훈련에 참여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담대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강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솜파 로이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힌두교 남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덕분에 솜파 로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회복되었고, 존엄성과 힘으로 다시 옷 입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솜파 로이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녀와 자녀들이 이웃들의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솜파 로이의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박해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방글라데시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 (전체 인구의 0.3%)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옷을 입다

박해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기도를 통해 이들에게 힘과 소망의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이름: 라일라
국가: 이집트
상황: 14세,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라일라는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서 친구, 집, 그리고 친척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이 어린 소녀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꿰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버림받은 느낌만 들어요." 라일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라일라는 오픈도어 파트너의 제자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역 가정교회 밴드에서 연주를 하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소녀는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주님의 귀한 딸인 라일라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며,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라일라가 무슬림 친구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집트의 여성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름: 아이샤*
국가: 중앙아시아
상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지낼 곳을 잃은 싱글맘



500명의 군중이 아이샤의 집에 몰려왔을 때 거기에는 80명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아이샤의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샤는 남편 하릴*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군중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제 안에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순식간에 아이샤와 그녀의 네 자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수도에 있는 한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구적인 집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도제목

- 아이샤가 안전하게 살아갈 곳과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아이샤와 하릴을 화해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릴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름: 야스미나* 국가: 북아프리카
상황: 기독교로 회심, 박해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남

야스미나는 20대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어요. 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야스미나의 남편은 인가 없이 '비이슬람교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습니 다. 결국 부부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스미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야스미나와 그녀의 남편 살레*가 고향으로 돌아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박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기독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북아프리카에서 박해받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극심한 위협으로 인해 가명을 사용하고 실물이 아닌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후원

박해받는 여성들은 존엄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들이 회복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박해받는 여성들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30,000원으로 두 명의 박해받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60,000원으로 박해받는 여성을 굳건하게 하는 제자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000원으로 두 명의 박해받는 여성들에게 한달치 필수적인 실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신다면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선교회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여성사역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여성사역 100-027-219169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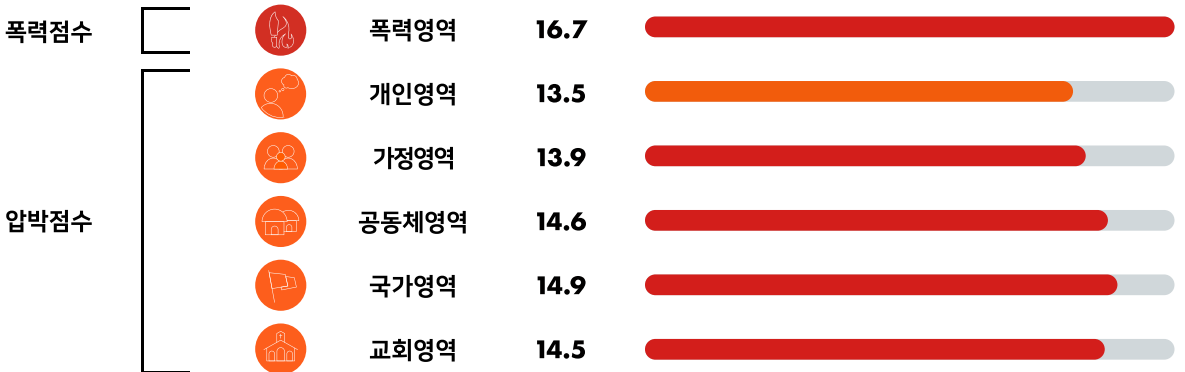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7 위

나이지리아(NIGER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기독교인들은 민족-종교적 적대감, 이슬람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독재자의 편집증,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의 숨막히는 조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전 정부는 보코하람과 현재 더 강력하게 분열된 ISWAP(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풀라니족 무장 세력 및 여러 무장 도적 단체의 공격으로 북부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무장 폭력 증가를 막는 데 실패했다.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보코하람과 ISWAP에 비해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무장 도적 단체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에서 풀라니족 무장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폭력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는 인명 손실, 신체적 상해, 강간, 납치, 재산 손실, 농지 파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지와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부, 특히 샤리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주에서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종종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이 증가하고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감과 불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부하리 전 대통령은 무슬림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배치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현 티누부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부분적으로 반전시켰다. 공격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는 연방군의 지휘를 받는 보안군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플라니 목동과 가축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목동과 농부 관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 새로운 트렌드이다. 첫째, 북서부에서 첨단 무기와 급진적 이슬람주의 의제로 무장한 새로운 지하드 테러 단체인 '라쿠라와'가 등장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확장주의 알카에다 반군인 자마 누스라트 울 이슬람 와 알 무슬림과 연계되어 있으며 JNIM이라고 불린다. 둘째, ISWAP-보코하람 통합 전선의 출현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나이지리아의 한 안보 분석가에 따르면, 사헬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그룹 간의 지속적인 동맹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NIGERIA)

국가 정보

지도자 : 라 아메드 아데쿤레 티누부 대통령

인구 : 229,152,000명

기독교인 수 : 106,608,000 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연방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06,608,000	46.5
무슬림	105,322,000	46.0
민족-종교인	16,417,000	7.2
불가지론자	592,000	0.3

출처²

나이지리아의 민주적 전환은 16년간의 군사 통치가 끝난 1999년에야 이루어졌다. 범진보의회(APC) 출신의 부하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2023년 5월 집권 후 티누부 대통령은 대대적인 개각을 통해 보안 책임자(및 기타 서비스)를 교체하여 무슬림과 기독교 비판적 공직자 간의 균형을 맞췄다(AI-Jazeera, 2023년 6월 20일). 또한 그는 북부의 무슬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남서부 무슬림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했으며, 이는 계속되

¹ 정보출처: Zurló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ó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어 티누부는 다른 민족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Politics Nigeria, 2024년 3월 10일). 2023년 6월 13일 더 인사이트에 따르면, 티누부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 내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WL 2025 보고 기간은 그가 아직 이 점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민족과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정서에 호소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적으로 무슬림 하우스-폴라니족 정치인들은 특히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군대에서의 지배력으로 인해 정치 분야를 지배해 왔다. 나이지리아 정치의 주요 논쟁의 골자는 나이지리아의 막대한 석유 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분배이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

나이지리아 남부는 주로 기독교인(기독교인 71%)이 많은 반면, 나이지리아 북부는 주로 무슬림(기독교인 26%)이 많다. 종교적 분열은 부분적으로 인종적 분열과 일치한다. 북부의 하우스족과 폴라니족은 주로 무슬림, 남동부의 이그보족은 주로 기독교인, 남서부의 요루바족은 무슬림과 기독교 인구가 모두 상당수다.

헌법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속 국가이지만, 수십 년 동안 북부 지배 엘리트들은 무슬림을 위해 기독교인을 차별해 왔다. 1999년부터 북부 12개 주에 샤리아법이 제정되었다.

무장 세력은 북부 여러 주에서 주로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살해, 강간, 납치하고 교회와 기타 건물을 파괴하며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농지를 점령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에서 폴라니족 무장 세력과 슈와족 아랍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폭력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폴라니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무장 도적 집단도 강간, 살인, 재산 방화 등의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을 납치하고 지역사회를 농노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코하람과 ISWAP는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폴라니족 무장 세력이나 무장 도적 집단에 비해서

는 그 수가 적다. 이러한 다양한 반군 그룹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모두 기독교인을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폭력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북부 주와 일부 남부 주에서도 마찬가지다.

2023년 말, 나이지리아에는 폭력으로 인해 33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이 모든 폭력은 공포를 확산시키고 기독교인(및 기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여러 차원에서 극도의 취약성을 초래하여 트라우마 상담 서비스가 극히 부족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다. 납치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납치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몸값이 요구되는 '세대 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교구나 교회에서도 사제나 목사가 납치되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현재 치안 불안으로 인해 10,000개 이상의 학교가 폐쇄되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문맹, 조혼, 빈곤에 처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EDUGIST, 2024년 2월 4일 보도). 이로 인해 이슬람 무장 단체에 대한 모집이 더 쉬워져 폭력과 억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 상황은 모든 민간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6개의 지정학적 구역이 있다. 각 지역마다 기독교인(및 기타)에 대한 적대행위의 양상이 달랐다. 북동부 지역의 폭력은 주로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해 자행되었다. 북서부에는 여러 무장 도적 집단이 있었다. 카두나 주를 포함한 중북부에는 폴라니족 무장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폴라니 무장 세력과 무장 도적 단체의 활동 영역은 서로 합쳐지고 부분적으로 겹쳤다. (ORFA, 2024년 8월 29일) 북부에서 '라쿠라와'가 등장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확장주의 알카에다 반군인 자마 누스라트 울 이슬람 와 알 무슬림과 연계되어 있으며 JNIM이라고 불린다. 폭력은 더 이상 북부 3개 지정학적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남부 3개 지정학적 구역으로 확대

되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그룹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중첩되고 있으며, 어떤 폭력 그룹이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특정 그룹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나이지리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등 개신교 교파가 있다. 이들 교회는 특히 북부 주에서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와 무장 도적 집단에 의해 생명과 재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지역 당국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 남부 주에서도 풀라니족 무장 세력의 토지 강탈과 주민 협박으로 폭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살해나 괴롭힘을 피해 집과 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종종 '안전가옥'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발생하지만 남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와 오순절 공동체는 현재 나이지리아 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와 비슷하다. 북부 주에서 복음주의와 오순절 공동체는 지역 당국의 차별은 물론,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와 무장 도적 집단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 대한 폭력은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민족-종교적 적대감, 이슬람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독재적 편집증, 조직적 부패 및 범죄

나이지리아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의 원인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북부 12개 주는 샤리아 법의 지배를 받는다. 부하리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북부 무슬림을 안보 기구와 주요 경제 부문의 요직에 임명했다. 그의 후임자인 티누부 대통령은 무슬림과 기독교 비판적 공직자 간의 균형을 맞추었지만, 자신의 주 출신 무슬림들을 계속 임명해 비판을 받아왔다. 티누부 대통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전역에는 비무슬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는 면책 문화가 존재한다. 비기독교인(특히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와 폭력 선동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보코하람과 ISWAP와 같은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는 민간인, 특히 기독교인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다른 무장 도적 집단이 저지르는 폭력도 마찬가지다. 이는 북부 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남부 주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가해자로는 기독교인, 가족(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정당 및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거리 폭력을 저지르는 시민 폭도들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플라니족 무장 세력, 여러 무장 도적 집단,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과 ISWAP의 습격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성노예가 되어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무장세력에 납치된 소녀들은 '결혼'되는 것 외에도 인간 방패나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때때로 아내를 더럽혀진 존재로 간주하여 더 큰 낙인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난민 캠프에서 성폭력에 추가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자녀 양육권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사업/직업/직장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 결혼
- 마을/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표적화된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나이지리아 북부와 남부에서는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이 플라니 무장 세력, 무장 도적, 보코하람, ISWAP 등의 공격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현재 세대의 남성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의 출산율도 떨어질 것이다. 생존자들과 어린 소년들은 무장 세력에 강제로 편입될 위험이 있다. 기독교인 남성은 또한 고용과 교육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남성이 살해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부양 가족은 빈곤층이 될 수 있다. IDP 캠프에서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은 신체적 폭력과 살인에 추가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 또는 소유권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사업/직업/직장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군인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사망 / 신체적 폭력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7	88
2024	6	88
2023	6	88
2022	7	87
2021	9	85

압박 점수와 폭력 점수(후자는 가능한 최대 수준)는 WWL 2025 보고 기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블라 아메드 티누부 신임 대통령은 전임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때보다 두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직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보안군이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WWL 2025 보고 기간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12월 23일부터 나이지리아 고원주에서 3,0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들이 38개 마을로 흩어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마을에서 마을로 행진하는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는 무장 테러리스트 대대가 8일 동안 마을을 습격해 최소 29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모니터링 단체인 Plateau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um이 기록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납치된 기독교인	성폭행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기독교인
2025	3100	2830	1000*	10,000*
2024	4118	3300	1000*	10,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종교 기반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세요.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등근 숫자(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기호 숫자 10,000*, 100,000*, 1,000,000*도 마찬가지다.

개인 영역

나이지리아 북부(남부 일부 지역 포함)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괴롭힘이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위험하다.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경우 이름만으로도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습에서 사람의 이름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많은 주의 시골 지역에 있는 (주로) 기독교인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도 매우 위험하며 높은 수준의 공포를 유발한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들은 특히 북부 주(남부 일부 포함)에서 가정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자신의 새로운 신앙이 발각되어 자녀 양육권을 잃거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기독교인 여성이 사별하면 무슬림 친척이 아이를 데려가 무슬림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 부모가 난민 캠프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 영역

나이지리아 북부(남부 일부 포함)에서는 영어 또는 성경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병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이교도로 간주되어 괴롭힘을 당한다. 심지어 남성은 '부도덕한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될 수도 있다. 통치 에미르들은 때때로 강제 결혼을 위해 기독교인 소녀들을 납치하는 데 연루되기도 한다. 정부의 편의시설은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물 공급을 거부당해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에서도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는 위생 서비스와 같은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보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의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항민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구호품 배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영역

다수 종교를 신성 모독하거나 모욕했다는 비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슬림과 대화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나 이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의 재산을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체포되지 않는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무슬림이 쉽게 풀려나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는 범죄로 기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관할권이 없는 샤리아 법원에서 기소되기도 한다. 그들의 증거 가치는 무슬림의 절반에 불과하다. 헌법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북부 12개 주에서 채택된 샤리아법이 이를 대체한다. 언론은 종종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공동체 충돌'로 보도한다. 무슬림이 소유한 언론 매체는 무슬림의 기독교인 공격에 대해 축소 보도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교회 영역

지역에 따라 이주민들은 (가정) 교회에 모일 수 있지만 심각한 보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아랍어 기독교 문헌과 성경을 반입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에 대한 개종이나 선교 활동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나이지리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나이지리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국가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ICCPR 제2조)
- 무차별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다(ICCPR 6조)
- 기독교인 여성들은 강간, 집단 강간,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7조)
- 기독교 어린이들은 북부 주에서 이슬람 종교 계율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북부 주와 일부 남부 주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ICCPR 18조 및 26조)

나이지리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아프리카 전통 종교(ATR) 신봉자들은 공격과 납치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8월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격 및 살해된 종교인은 최소 154명, 납치된 종교인은 최소 184명이었다.

지역사회를 공격하는 무장 단체의 일원이 아닌 무슬림도 공격에 취약하다. 특히 북서부와 중북부 주에서는 많은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살해 및/또는 납치한 단체에 의해 살해 및/또는 납치당했으며 마을을 떠나야 했다. (위에서 언급한 ORFA 보고서 참조)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은 플라니족 무장 세력과 도적 집단이 하우사어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 전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나이지리아 이슬람 운동(IMN)으로 알려진 특정 조직은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법원 명령(2019년 7월 26일)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운동과 관련된 시아파 관습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박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나이지리아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해 왔다. 우리의 비전은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 새로운 박해 추세에 대응하고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가시적인 존재가 되는 교회를 보는 것이다:

- 박해 대비 교육 및 지원
- 경제적 역량 강화
- 새 신자 돌봄
- 제자 양육
- 동원



이끄심

김서윤 전도사

이윽고 둥근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밤이 깊어졌다. 마침 늘 성실히 자신들의 임무를 다 했던 경비병이 그때만큼은 마치 우리에게 도망갈 기회라도 주는 마냥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이 때를 틈타 시설을 탈출했다. 그리고 처음 강을 건너왔던 산 너머 강변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뛰었을까? 저만치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비대원들이 추격해 온 것이었다. 동남아의 우거진 숲들과 가시 덩굴을 헤집으며 군견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는 듯 했다. 온몸이 가시에 긁혀가며 우여곡절 끝에 처음 출발 지점이었던 베이론 강변에는 도착했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음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강의 모습이었다. 3개월이 다 되도록 그곳 베트남에서 우기를 보냈던지라 그 사이 강물이 크게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대로 있다가 잡힐 수는 없으니 우리는 결국 넘실거리는 강으로 들어설 결단을 했다.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평소 가방에 챙겨두었던 밧줄로 황급히 서로의 몸을 묶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말고 발버둥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다고 신신당부하셨다. 마침내 우리가족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현실적으로 거센 물살속에서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긴 상태로 반대편으로 떠내려가려고 애썼다. 강물에 삼켜지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그 와중에 오토바이 소리와 군견들이 짖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우리는 사투 끝에 새벽이 밝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에야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울 수 있었다. 다행히 다치거나 물살에 휩쓸린 사람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무사히 탈출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실망과 절망감은 너무 컸다. 뚜렷한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강을 넘어

온 우리는 이제는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일단 우리는 길림으로 발길을 돌렸다.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기적같은 일이었지만, 한국행을 바라던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꺾어버렸다. 무엇보다 북한에서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한국행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그라졌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북한도, 남한도 갈 수 없으니 중국에서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중국 땅이지만 당장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길림시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사실 그 도시도 여정 간에 잠시 머물던 곳에 불과했으니, 우리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얼마동안은 길림시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는 송화강(松花江) 다리 밑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낙심은 컸지만 중국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다행히 은명이 이모네 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주방 큰어머니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고 해주셨다. 어머니는 침과 땀을 내놓을 줄 아셨는데, 평소 관절이 안 좋으셨던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시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록 나무로 불을 때는 단칸방의 작은 집이었지만, 당장 이 몸 하나 덥혀줄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머니와 주방 큰어머니는 낮에 일하러 나가셨다. 불법체류자인 우리 남매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까봐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2명 이상 되면 중국정부가 단속도 했고, 평생 벌금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월급까지 삭감시키는 어마무시한 정책이 있었다.

(계속)

WWL 전북 / 대구 / 광주지역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전북

일시: 4월 24일(목)
오전 10:30

장소: 세계선교슬라이트교회
(김에스더 목사)

주소: 전북 김제시 도작로139
부영2차아파트 상가 201호
Tel: 010-5301-7661

대구

일시: 5월 29일(목)
오전 10:30

장소: 예수그이름교회
(류성호 담임목사)

주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57길 39
Tel: 053-962-799

광주

일시: 7월 17일(목)
오전 10:30

장소: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담임목사)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58-6
Tel: 062-655-1225



Heart To Heart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기도책자 신청하세요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전세계 박해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책자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요청하기- 각종 자료 요청),
카카오톡 채널, 문자,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